

조찬회 유감

조 상 규

(금호텔레콤 부사장)

세월이 흐를수록 조찬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도 저녁에는 서로가 너무 바빠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저녁 모임이 중복되고 하니까 조찬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도 조찬 모임을 준비하는 주최자 측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장소예약에서부터 연사초청하는 일까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인데 매번 참으로 열성적으로 모임을 주선한다.

오늘도 조찬 모임에 다녀왔다. 사실 나갈까 말까 몇 번을 망서리다가 나가기로 마음먹고 자명종 시간을 5시 30분에 맞추고 잠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어떤 때는 자명종 소리를 들으면서도 조금만 더 하면서 이불 속에서 꿈지락 대다 보면 그만 셋잠이 들어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때는 연락한 사람한테 미안하기가 짝

이 없다. 어저께까지도 꼭 참석한다고 확인까지 하였는데 늦잠을 자고 말았으니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오늘 아침 모임은 정말 잘 참석하였다고 생각된다. 우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몇몇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조찬회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얼굴빛이 환해진 것이다.

연사로 초청된 분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 그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앞으로 풀어나갈 방향에 대하여 그분의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참석자 모두에게 동감이 가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여간 기분좋은 아침이 아니었다.

반면에 조찬회에 괜히 나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더러 있다. 만나자 마자 대뜸 하는 인사가 아침부터 과히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흰머리가 많아졌다든가 요즘 사업이 잘 안되는지 얼굴이 좀 안되어 보인다고 하는 인사는 누구나가 듣기 싫은 인사말이다.

세월이 흐르면 흰머리가 많아지게 되고 사업이 잘 안풀리면 당장 얼굴에 수심이 끼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꼬집어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조찬회의 시간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시작하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끝나는 시간도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 조찬회 마치고 다른 약속이 있을 경우에 특강 도중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던 기억이 있다. 연사가 한참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끝나기 기다려서 나가자니 다음 약속에 늦게 되고 진퇴양난의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조찬회의 참석여부를 협회 사무국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예약을 많이 하여 쓸데없는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빈 좌석이 많이 있는것이 어쩐지 초청연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서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유익하고 기분좋은 조찬모임이 될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보자.